



평균나이 45세의 록밴드 옆집아저씨. 1집을 출시하고 타이틀곡 '띠동갑'으로 활동에 나섰다.

스포츠동아108

‘옆집아저씨’들이 떴다!

20년간 음악해 온 실력과 5인들 밴드 결성
띠동갑 연인 향한 타이틀곡 벌써부터 눈길

‘아저씨들의 반란’

평균 나이 45세, 다섯 명의 아저씨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쳐 그룹을 만들었다. 아저씨만이 전해줄 수 있는 푸근한 매력과 친근한 음악으로 다가가겠다는 의미에서 그룹 이름도 ‘옆집 아저씨’다. ‘옆집 아저씨’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를 맡은 김프로(본명 김상태·42), 기타를 연주하는 최기타(최수현·46) 박하드(박강서·49), 베이스 강베이(강내혁·41), 드럼 제이드(조영주·46) 등으로 구성됐다. 모두 본명을 두고 독특한 예명으로 활동한다.

예명은 익살스럽고 재미있을지 몰라도 음악 실력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김프로는 본명인 김상태라는 이름으로 그룹 가무진과 전자 첼로 오아미 앨범에 참여한 바 있고 각종 드라마 배경음악 작곡가으로도 활동해왔다.

‘옆집 아저씨’의 1집 수록곡 8곡 모두 그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했다. 다른 멤버들 또한 녹음 및 공연 세션으로 20년 이상 활동한 실력파들이다.

그동안 남의 노래를 부르다 자신만의 음악을 해보자는 뜻에서 앨범을 냈고, 타이틀곡 ‘띠동갑’은 트로트풍 멜로디곡이다.

그룹 내 유일한 싱글인 김프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담았다. ‘잠시 스쳐갈 줄 알았어/너를 향한 내 마음/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멈출 수가 없었어’는 띠동갑 연인을 향한 그의 사랑 고백으로 경쾌한 사운드에 중독성 짙은 멜로디가 특징이다.

다른 곡 ‘힘을 내라 친구들아’는 미디엄 템포에 강렬한 비트가 특징인 곡으로 40~50대 고개 숙인 남성들을 위로하는 곡이다.

김프로는 “밴드 콘셉트가 옆집 아저씨인 만큼 누구나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도록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옆집 아저씨’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24일부터 ‘동사모(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함께 13일간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남자스타들, 여름 사극전쟁

이서진·차인표·조재현, MBC ‘계백’에
한석규·장혁은 SBS ‘뿌리깊은 나무’ 주연



상반기 안방극장 트렌드가 공효진·윤은혜·성유리·장나라 등이 출연한 로맨틱 코미디였다면, 여름에는 남자 주연의 선 굵은 사극들이 격돌한다. 7월부터 지상파 3사가 방송하는 드라마들 가운데 남자 스타가 주연으로 나선 사극들이 유난히 많다. 40대 한석규부터 10대 유승호까지 주연들의 연령층도 다양하다.

7월 말부터 시작하는 MBC 월화드라마 ‘계백’(극본 정형수·연출 김근홍)은 이서진·차인표(사진)·조재현이 주연을 맡은 남성 사극이다. 백제 계백 장군을 통해 삼국의 흥망성쇠를 담았다.

최근 ‘선덕여왕’이나 ‘동이’처럼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 섬세한 사극을 방송했던 MBC가 올해는 분위기를 바꿔 남성들이 벌이는 치열한 싸움을 다룬다.

9월에 시작하는 SBS 수목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극본 김영현·박상연·연출 장태유)도 하반기 기대작이다.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한석규와 장혁이 두 톱 주연을 맡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기를 배경으로 훈민정음 반포 전 7일 동안 집현전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소재. 한석규가 세종대왕으로, 장혁이 천민 출신의 집현전 학자를 맡았다.

고교생 연기자 유승호도 사극의 주연을 맡았다. 7월4일 시작하는 SBS 월화드라마 ‘무사 백동수’(극본 권순규·연출 이현직)가 새로운 무대다. 손에 피를 묻히며 사는 냉혹한 성격의 무사 역을 맡은 유승호는 그동안 연기한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변신했다.

이 외에도 7월20일부터 방송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극본 조정주·연출 김정민)의 박시후는 조선 초를 배경으로 공주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나누는 주인공으로 나온다.

남자 중심의 사극들이지만 이들과 호흡을 맞출 여자 스타들도 있다. ‘뿌리 깊은 나무’의 신세경, ‘계백’의 오연수가 남자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다.

이혜리 기자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 hk7048

‘해운대’ 용사들 헤쳐모여!

하지원 ‘7광구’…설경구는 ‘타워’ 촬영 앞뒤
이민기·강예원·김인권은 ‘퀵’서 의기투합
모두 100억대 대작…“1000만 흥행 어게인!”

‘헤쳐 모여!’

1000만 관객 동원을 자랑하는 영화 ‘해운대’의 주역들이 각기 다양한 마당에서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개봉해 1130만여명의 관객을 불러모은 ‘해운대’의 하지원, 강예원, 김인권 등은 ‘퀵’에 합류했다. 김영호 촬영감독도 ‘퀵’에 참여해 이들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그런가 하면 설경구는 손예진, 김상경 등과 함께 ‘화려한 휴가’의 김지훈 감독의 신작 ‘타워’의 촬영을 앞두고 있다. 김지훈 감독은 그에 앞서 하지원과 ‘7광구’에서 의기



‘해운대’의 주인공들이 블록버스터 주연으로 나섰다. ‘7광구’의 하지원, ‘타워’의 설경구, ‘퀵’의 이민기(왼쪽부터).



사진제공 | CJ E&M

투합했다.

눈길을 모으는 것은 이 작품들이 모두 제작비 규모 100억원을 넘어서는 블록버스터라는 점.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쓰나미를 소재로 한 ‘해운대’가 큰 스케일을 자랑하며 흥행에 성공했듯, ‘퀵’과 ‘7광구’ ‘타워’ 역시 한국 영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소재와 스토리를 담고 있다.

‘퀵’은 폭탄이 장착된 헬멧을 쓴 아이돌 그룹 멤버를 구해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테러와의 싸움을, ‘7광구’는 석



소속사와 손잡고 스타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공유, 한예슬, 엄태웅(왼쪽부터).

한예슬이 파는 커피 공유가 내미는 주스

스타 마케팅의 진화…소속사 사업을 위해 뛰다

스타 마케팅이 진화하고 있다. 연예계 스타의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한 ‘스타 마케팅’의 가장 흔한 모습은 각종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일이지만 이제는 인기 스타들이 아예 자신이 속한 기획사와 함께 연예 분야가 아닌 다른 업종에 참여하고 있다.

한예슬과 공유는 현재 각각 소속사가 참여한 음료·디지털 카페 프랜차이즈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엄태웅은 펜션 광고모델로 나섰다. 그가 모델을 맡은 펜션은 최근 소속사인 심엔터테인먼트가 시작한 숙박 체인이다.

철원에 생긴 ‘엄태웅 길’

엄태웅은 7월 1일 문을 여는 호텔형 펜션 ‘모닝캄빌리지’의 모델로 나섰다. 펜션 체인에 연예인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것은 처음. 이 펜션은 엄태웅 소속사인 심엔터테인먼트가 만든 숙박시설로 1호점인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을 시작으로 8개 점이 문을 연다.

모닝캄빌리지는 엄태웅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광고 모델에 그치지 않고 철원군과 손잡고 한탄강 인근에 엄태웅의 이름을 단 ‘엄태웅 로드’까지 만들었다. 스타의 인지도를 이용해 새로운 관광지를 소개하는 시스템은 각 지방자치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심엔터테인먼트 심정은 대표는 “엄태웅을 활용해 새로운 분위기의 숙박시설이 생겼다는 걸 알리는 게 1차 목표이고 순차적으로 여러 스타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스타와 팬의 소통 창구로 펜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엔터테인먼트에는 엄정화, 김윤석, 유해진, 서우 등이 소속돼 있다.

모닝캄빌리지는 앞으로 문을 여는 다른 지점에서도 소속 연예인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벌일 계획이다.

심정은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답게 대형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볼 수 있고 레이저쇼 같은 이벤트를 마련해 친숙하게 느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기획사와 스타들의 각축장,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예기획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최근 이 분야로 진출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시작해 성공을 거둔 곳은 한예슬, 조인성의 소속사 싸이더스HQ가 참여한 ‘카페베네’다.

카페베네는 현재 전국 가맹점이 600개가 넘을 정도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매

장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는 한예슬을 활용한 스타 마케팅이 한 몫을 했다.

공유가 모델로 활동하는 디지털카페 프랜차이즈 ‘망고식스’도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

공유 입수정 하정우 등이 소속된 NOA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한 망고식스는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인기 높은 한류 스타의 명성을 활용해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망고식스는 올해 안에 베이징과 상하이에 먼저 매장을 연다.

망고식스의 박상원 이사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각 제품에 스타의 이름을 붙이는 마케팅을 계획 중”이라며 “NOA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에 국한하지 않을 생각이다. 인기 걸그룹 멤버의 이름을 붙인 제품이 가장 먼저 출시된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와 태국 일본 시장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유답사기지에서 벌어지는 과속명제와의 혈투, ‘타워’는 초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에 맞서는 재난의 이야기다. 특히 ‘퀵’과 ‘7광구’는 올해 여름 개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같은 ‘헤쳐 모여’식 의기투합은 ‘해운대’의 제작과정에서 쌓은 경험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윤 감독은 “배우들과 스태프에 대한 인간적 교감과 신뢰가 없었다면 제작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